

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. 나도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, 선교라는 이름으로 해외도 몇 번 가보았으며, 선교헌금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동참해본 경험이 많이 있다. 하지만 여전히 선교는 어렵고 막연하며 아직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.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첫째로는 해외라는 넓은 범위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,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안에서와 내 주변에서도 확실히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해외까지 생각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. 하지만 내가 내 주변에 대해 완벽하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 해외에까지 나갈 자격을 얻을까 싶다. 내 주변에 대한 선교와 해외에 대한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이 책에서 깨닫게 되었다.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역의 동시성을 말하며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동시에 가야한다는 말이 와닿았다. 즉,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. 사실 막연한 곳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나 스스로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. “내 주변부터 천천히 전도하고 해외선교를 시작하자”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.

이 책을 읽으며, 또한 여러 번의 TMTC 강의를 들으며 선교에 대해 많이 친숙해지고 알게되었다. 선교사로 가기까지 준비할 것들 부분을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. 나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?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받는 것이 아니더라도, 내가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. 하나님께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해 먼저 은사 계발이 필요하다고 한다. 올해 참 바쁜 시기를 보내며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여유가 참 없었던 것 같다.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을 가득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교사로서 다양한 은사를 계발할 필요성을 느꼈다. 한국어와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,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

하나님께서 나에게 TMTC훈련을 받게 하시고 선교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는 이 시간을 감사하게 여겨야겠다.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위해 늘 기도하며 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.